

## 보도자료



보도분류	브리핑( ) 보도자료 제공( ✓ )
보도일시	<b>2022. 2. 28.(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
작 성 과	스마트시티과
담 당	과장 정윤희, 스마트인프라팀장 신무남, 담당 신은선 · 손지수(453-7472, 7475)

### “인천시 · 인천항만공사 · 인천TP, 혁신 스타트업 발굴 · 육성에 힘 합친다”

업무협약 체결...인천항만공사 보유 인프라 실증자원 지원 등 골자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이 스타트업 성장 메카로 도약하는데 최선”

-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스마트 항만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발굴·육성에 힘을 합친다.
- 인천시는 28일 송도국제도시 인천 스타트업파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서병조 인천테크노파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예산 수립 △인천항만공사 보유 인프라 실증자원 지원 △‘실증브릿지 사업’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이다.
- 협약 체결은 인천경제청이 주관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우리나라 1호 스타트업파크인 인천 스타트업파크의 실증브릿지 사업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통한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실증브릿지는 혁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이 함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 실제로 지난해 수면 위 기름, 녹조 오염물 제거 해양방제로봇을 개발한 (주)쉐코가

인천항만공사의 에코누리호와 항만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쉐코는 이 지원을 통해 제품을 고도화, 특히 출원 2건과 ‘K-Safety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 인천경제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실증자금 지원, 인천항만공사가 보유한 실증 자원 활용, 성공적인 실증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스타트업에 대한 실증 자문 등이 지원되면서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앞으로 인천항만공사 외에도 셀트리온, 한림제약,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굵직한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올해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권기성 (주)쉐코 대표는 “지난해 스케일업 챌린지랩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스타트업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실증자원인 선박, 항만 등의 실증자원을 제공받아 당사의 비즈니스 모델인 해양방제로봇의 고도화를 이룰 수 있었다.”며 “올해도 인천이 갖고 있는 장점인 해양 자원 제공을 통한 스타트업 지원이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천 전역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혁신 스타트업 육성과 연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기관, 기업들과 함께 스타트업 지원에 힘을 모아 우리 인천시가 스타트업 성장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행사(16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